

아직도 발목인 기아차 광주공장

운송료 입장차 커 타결 난망... 완성차 수출 차질·조업 중단 위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광주·전남지역 주요 운송업체와 화물연대 간의 협상이 대부분 타결됐지만,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운송료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완성차의 수출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화물연대 광주지부는 오는 24일까지 사측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모든 투쟁력을 기아차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자칫 파업 사태가 지난 2006년 삼성전자 광주공장 상황 때처럼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22일 화물연대 광주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현대기아자동차 물류 계열사인 글로벌비스와 운송료 인상 폭을 놓고 두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글로벌비는 현대·기아차 소속 화물연대의 대표격인 울산지부와 지난 21일 운송료 22% 인상, 유가연동제 추후 재협의를 합의하고 운행을 재개했다. 이후 서경지부도 같은 조건으로 운송료 인상에 합의했지만, 광주지부 카게리어분회는 이 협상안

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부는 완성차 운송료 기준이 애초에 높게 잡혀있는 울산과 수도권지역에 비해 광주는 운송료 기준이 낮게 책정돼 있어, 일괄적으로 협상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수출용 완성차를 기준으로 목포항과 군산항 등 타지역을 7대 3 비율로 운행하고 있는 광주지부 카게리어분회 조합원은 목포항 1회 운행시(승용차 5대 수송) 16만6천원을 받고 있지만, 기름값(평균 65ℓ·경유 1ℓ 당 1천900원 기준)만 12만4천원에 달해 제반비용을 더하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완성차만을 실을 수 있도록 개조된 카게리어차량은 완성차를 내려 주고도 빈차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 군산과 평택항 등 장거리 운행차량의 적자폭은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광주지부 카게리어분회는 이런 이유를 들어 수출용 45%, 내수용 35%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이 제안한 22% 인상분과는 차이가 많이나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광주·전남 대부분 타결 물류운송 빠르게 정상화

화물연대 파업철회 방침 이후에도 난항을 겪던 화물연대 광주·전남지부와 지역운송업체 간의 협상이 속속 타결되면서, 물류운송이 빠르게 정상화 돼가고 있다.

22일 여수해양항만청에 따르면 화물연대 전남지부가 광양항의 컨테이너 반출입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지난 21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천906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하나)로 하루 평균 물동량(5천100TEU)의 37.4% 수준을 회복했다. 22일 낮 12시 현재 반출입량은 891TEU(광소 17.5%) 수준으로, 지난 20일 252TEU(광소 5%) 수준까지 떨어졌던 반출입량과 비교할 때 매우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19% 인상에 최종 합의했다.

광주지역 주요 사업장도 화물연대 광주지부와 운송료 협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물동량 운송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내수물동량 운송단가를 놓고 화물연대와 막판 줄다리기를 벌였던 삼성전자 광주공장 내수용 화물차 운송업체 3곳은 지난 20일 오후 화물연대 광주지부와 22% 운송료 인상에 합의했다.

/인한주기자 ahj@kwangju.co.kr

정갈 속성 동굴 구멍에서 40대 직원 숨진 채 발견

22일 오후 2시40분께 나주시 공산면의 한 식품회사 정갈 속성장인 동굴 속 구멍에 조모(여·40)씨가 떨어져 숨져 있는 것을 이 회사 관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정갈을 구입하러 왔다가 동굴을 둘러보러 들어간 조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일행들의 말에 따라 회사측 관계자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조씨가 동굴 속에 깊이 패인 구멍에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나주=정철한기자 chung@

나원침 (7537) 김종두



다 좋은 건국·산업지대 KCC

(주)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현행

▶ 서울본사 : 02-3445-0943

▶ 나주공방 : 061-337-0571

여수산단서 탄산가스 누출...한때 교통 마비

22일 오전 8시께 여수시 중흥동 여수국가산단 내 C화확에서 탱크에 저장 중이던 이산화탄소(CO₂)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액체화물 있던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퍼지면서 뿌연 안개처럼 일어나는 '드라이아이스' 현상이 발생해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바람에 인근 교통이 1시간 동안 전면

통제됐다.

여수소방서 관계자는 "C화확의 이산화탄소 저장탱크 메인밸브가 노후화로 인해 파손되면서 탱크에 보관중이던 이산화탄소 500t 중 약 30t이 누출됐다"며 "하지만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한 시간 후 정상화됐다"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장마철 병해충 예방 광주·전남지역에 최고 118.5mm까지 내린 장맛비가 그친 22일 오후 나주시 봉황면 송현리 참깨밭에서 노부부가 농약을 뿌리고 있다. 이번 주에도 24·25일 이틀간 장맛비가 내리겠으나 대체로 구름이 많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고속도 의문사 원인은 복어 독”

지난 4월27일 골프를 치러가다 제2종부고속도로 갓길에 정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광주 S고 출신 선후배인 김모(50·이비인후과 의사)씨와 박모(48·골프의류 판매업)씨 모두에게서 복어 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검출됐다.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21일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김

씨의 혈액에 대한 정밀검정에서 테트로도톡신이 검출됐다는 구두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테트로도톡신 중독에 의한 사고사로 잠정결론 지었지만 극미량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복어 독 성분을 의사인 김씨가 왜 복용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와 박씨는 4월 27일 오전 7시 38분께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제2종부고속도로 하행선 경안톨게이트에서 이천방향 4km 지점 갓길에 세워진 박씨 소유의 뉴그랜저승용차 안에서 특별한 이상없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의사 김씨는 사건발생 사흘 전인 지난 4월24일 중국 다롄(大連)의 약품취급회사 직원인 중국동포 박모(46)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테트로도톡신을 구입한 것으로 계좌이체내역 조사에서 확인됐다.

/연합뉴스

복어 먹은 일가족 3명 마비증세

복어를 먹은 일가족 3명이 마비증세를 일으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2일 새벽 고흥군 대서면 김모(여·84)씨의 집에서 김씨와 며느리(51)가 현기증과 마비증세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이날 배를 타러 나간 김씨의 아들(56)도 하반신에 마비증세를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됐다.

소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먹을 경우, 인체의 중추신경계를 마비시켜 뇌와 척수 등에 영향을 미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까지 할 수 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육군 하사 투신 자살

22일 새벽 4시50분께 광주시 북구 A아파트 화단에 강원도 모 부대 소속 김모(21) 하사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이 아파트 경비원 이모(60)씨가 발견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화단에 누군가 있는 것을 보고 가봤더니 이씨가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하사의 방 책상 위에 ‘부대생활이 힘들고 짜증 난다’라는 내용 등이 담긴 유서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건을 군부대에 인계했다.

○광주북부경찰은 22일 취업 준비를 하는 여대생을 성추행한 독서실 관리인 김모(54)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발자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밤 11시40분께 광주시 북구 풍향동에 주차된 자신의 승합차로 A(여·22)씨를 데려가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했다는 것.

○평소 “노숙자를 데려다 공부를 시켜 미국의 명문대학에 합격 시켰다”며 주변에 자랑하고 다니던 김씨는 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A씨가 “시험공부를 잘하는 비법을 알려 달라”고 부탁하자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못한 짓을 하게 됐다고.

○김씨는 경찰에서 “또 ‘처음부터 그럴 의도는 없었다.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순간 이성을 잃고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개원

Hospitality
Speciality
Community
지역사회

신체활동과 정신과제를 동시에... 전문성은 갖춘 의료진이 함께 합니다.

내과 전문진료	내과·수술·영상의학과 전문진료	간호사 전문진료	리ハビリ 전문진료	노년노약자 전문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과 전문진료 내과 전문진료 내과 전문진료 내과 전문진료 내과 전문진료 내과 전문진료 내과 전문진료 내과 전문진료 내과 전문진료 내과 전문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과 전문진료 내과 전문진료 내과 전문진료 내과 전문진료 내과 전문진료 내과 전문진료 내과 전문진료 내과 전문진료 내과 전문진료 내과 전문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호사 전문진료 간호사 전문진료 간호사 전문진료 간호사 전문진료 간호사 전문진료 간호사 전문진료 간호사 전문진료 간호사 전문진료 간호사 전문진료 간호사 전문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ハビリ 전문진료 리ハビリ 전문진료 리ハビリ 전문진료 리ハビリ 전문진료 리ハビリ 전문진료 리ハビリ 전문진료 리ハビリ 전문진료 리ハビリ 전문진료 리ハビリ 전문진료 리ハビリ 전문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년노약자 전문진료 노년노약자 전문진료 노년노약자 전문진료 노년노약자 전문진료 노년노약자 전문진료 노년노약자 전문진료 노년노약자 전문진료 노년노약자 전문진료 노년노약자 전문진료 노년노약자 전문진료

광주미래병원
31-260-2900

노년노약자 전문진료
331-9900